



5일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 개막하는 가운데 한국 야구가 17년 만에 최소 8강에 도전한다. 왼쪽부터 김도영, 안현민, 이정후.

연합뉴스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오늘 개막

한국 대표팀, 17년 만에 8강 도전

전 세계 20개국 4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 진행 한국 C조 편성... 일본·대만·호주·체코와 예선전

전 세계 야구 축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5일 미국, 일본, 푸에르토리코에서 조별리그의 막을 올린다.

올해 WBC 본선에는 20개 국가가 출전,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8강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정한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C조 조별리그에서 일본, 대만, 호주, 체코와 경쟁한다. 조 2위 안에 들어가 8강에 진출한다.

A조 경기는 푸에르토리코에서, B조와 D조 경기는 미국에서 진행된다. A, B, D조 일정은 현지 날짜 6일에 첫 경기를 시작한다.

A조에 푸에르토리코, 쿠바, 캐나다, 파나마, 콜롬비아가 편성됐고, 미국, 멕시코, 이탈리아, 영국, 브라질이 B조에서 경쟁한다.

우리나라와 조금 더 관련이 있는 D조에는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

화국, 네덜란드, 이스라엘, 니카라과가 들어 있다.

한국이 8강에 오르면 D조 1위 또는 2위 나라와 4강 진출을 다툰다.

한국은 WBC가 창설된 2006년 3위, 2회 대회인 2009년 준우승 등 좋은 성적을 냈으나 이후 열린 2013년과 2017년, 2023년에는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했다.

아시아게임에서는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2023년 항저우까지 4회 연속 금메달을 따낸 우리나라는 그러나 2021년 도쿄 올림픽 6개 나라 중 4위, 2024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조별리그 탈락 등 국제 대회에서 좀처럼 성적을 내지 못했다.

대표팀 주장 맡은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지난 1일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제가 성인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참사의 주역'만 된 것 같다"며

"선배들의 영광을 이번 대회부터 다시 일으키고 싶다"고 각오를 다진 이유다.

2009년 이후 17년 만에 WBC 8강에 도전하는 우리 대표팀은 지난해 1월 류지현 감독에게 대표팀 지휘봉을 맡기며 이번 대회를 착실히 준비해왔다.

소속팀의 스프링캠프가 시작하기도 전인 올해 1월 사이판 훈련을 시작으로 2월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손발을 맞추며 전력을 다졌다.

이정후와 김해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는 선수들도 합류했고, 한국계 선수들도 3명이나 엔트리에 포함됐다.

최근 평가전에서 김도영(KIA 타이거즈), 안현민(KT wiz) 등 2003년생 젊은 타자들의 파괴력이 돋보인 것도 한국의 8강 진출에 청신호다.

그러나 같은 조에서 경쟁할 팀들의 전력 역시 만만치 않다.

2006년과 2009년, 2023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일본은 오타니 쇼헤이, 아마모토 요

시노부(이상 다저스) 등 쟁쟁한 '월드 스타'들을 앞세워 이번 대회 미국과 함께 '2강'으로 꼽힌다.

대만 역시 2024년 프리미어12에서 우승했고, 주요 국제대회마다 우리나라와 치열하게 맞붙은 야구 강국이다.

한국은 5일 오후 7시 일본 도쿄돔에서 C조 최약체로 평가되는 체코와 1차전을 치르고, 7일 같은 시간 일본과 2차전을 벌인다.

8강 진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만전은 8일 정오에 시작한다.

조 2위 안에 들면 선수들은 대회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8강이 열리는 미국으로 이동한다. 한국이 속한 C조의 8강부터 모든 일정은 마이애미에서 치른다.

한국이 조 1위로 8강에 오르면 D조 2위와 준준결승에서 만나고, 조 2위가 될 경우 D조 1위를 상대하게 된다.

한편 MLB닷컴이 3일 발표한 이번 대회 파워 랭킹을 보면 일본과 미국이 1, 2위로 꼽혔고 한국은 7위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애월초 이지환 동계체전 '동메달' 남자 12세 이하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동계체육대회 스노보드 종목 첫 메달을 따냈다.

지난달 25~28일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서 열린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남자 12세 이하부 스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이지환(애월초 6)이 77.66점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지환은 지난 2024년부터 3년 연속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온 유망주로, 이번 메달은 제주 선수단 스노보드 종목 역사상 첫 메달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제주선수단은 이번 대회 스키와 아이스하키 2개 종목에 총 52명(선수 39명, 임원 13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제주선수단은 동계스포츠 불모지라는 약점에도 지난해에는 스키 프리스타일 모글 등에서 금·동메달 각 1개, 아이스하키 12세 이하부 동메달 1개 등 총 3개의 메달을 획득



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신진성 회장은 "선수단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훈련 지원과 선수 육성을 통해 동계종목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향후 종목단체 기반 강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제주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1968@ihalla.com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뉜 개보수를 위해 임시 휴장하는 연정정구장. 제주시 제공

전국체전 대비 연정정구장 임시 휴장

6월까지 노후시설 개보수

제주시는 올해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오는 6월 말까지 연정정구장을 임시 휴장, 시설물을 개보수한다고 4일 밝혔다. 연정정구장은 전국체육대회 소프트테니스 종목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보수에는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시설물 전반을 정비한다. 코트 재질을 변경하고 노후 관망석과 부대시설 정비, 배

수시설을 보강해 경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선수 부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1984년에 조성된 연정정구장은 부지 면적 9235㎡, 경기장 면적 6600㎡로 코트 10면과 300석 규모의 관중석을 갖추고 있다.

김동한 시 체육진흥과장은 "연정정구장을 개보수해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와 함께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취득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학위 김동진 (부: 김우준 · 모: 박민정)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큰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작은아빠, 고모 외 가족 일동

경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 한국MSD 허가개발부 전무 고문정 (부: 고삼웅(前하귀2리 이장) · 모: 강양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 일동

취득 융합보안학 박사 고성훈 (부: 고영복 · 모: 김창선의 차남) 융합보안학(산업보안) 박사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윌리엄 노인회, 윌리엄 청년회, 윌리엄 부녀회

수상 고용노동부장관표창 박성현 (주)한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초록우산 서귀포시후원회 회장 고용노동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초록우산 서귀포시후원회 회원일동